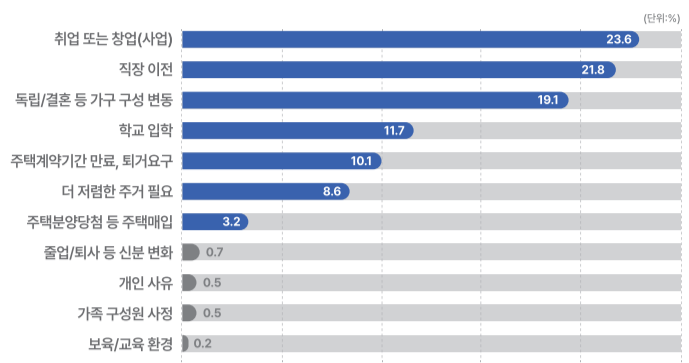


그냥 대전이 좋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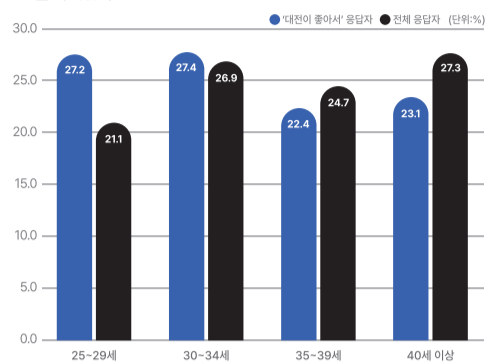
대전 이주 청년 인식조사 결과로 본 이주 사유와 정주 만족도

도시정보센터는 2023년 11월 최근 20년 동안 대전으로 이주한 25~45세 남녀 시민 2,128명을 대상으로 이주 사유와 정주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. 2022년 합계출산율¹⁾ 반등 원인이 궁극한 상황에서, 이들은 대전 이주 후 출산을 했을 수도, 앞으로 할 수도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다. 이들의 대전 이주 사유를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'그냥 대전이 좋아서 이사 왔다'는 응답의 수가 적지 않았다. '일자리'와 '주택'이 이주 계기이면서,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게 일반적이는데 이들의 이주 사유는 독특했다. 그냥 대전이 좋아 이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?²⁾

■ '대전이 좋아서'라고 응답한 858명의 대전 이주 계기(당시 상황 또는 외부 요인)는 취업 및 창업(23.6%), 직장 이전(21.8%), 가구 구성 변동(19.1%), 학교 입학(11.7%), 주택계약기간만료(10.0%), 더 저렴한 주거 필요(8.6%), 주택분양당첨 등 주택매입(3.2%)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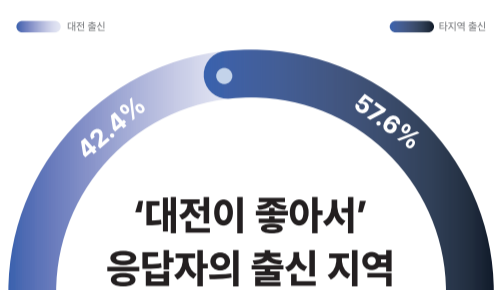


■ 응답자의 나이는 골고루 분포한 반면, '대전이 좋아서'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더 젊은 연령대에 집중되어, 젊을수록 '그냥 대전이 좋아서 여기 살고 싶다'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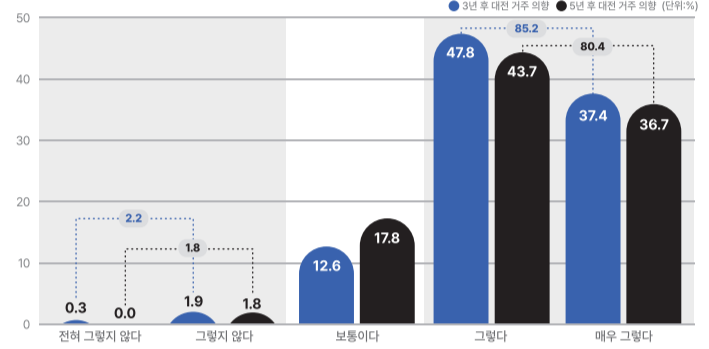


■ '대전이 좋아서' 응답자(n=858)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, 특성별로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(55.8%),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-300만원 미만(22.6%), 점유형태는 자가(30.4%), 근무형태는 상용근로자(44.5%), 근무시간은 40-52시간 미만(70.4%)의 비중이 높다.
 ■ 대전으로 이사 오기 전 살던 지역을 살펴보면, 전체 응답자(n=2,128)는 충남(18.6%)과 서울(18.2%)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, '대전이 좋아서' 응답자(n=858)는 충남(24.2%)과 서울(15.4%)의 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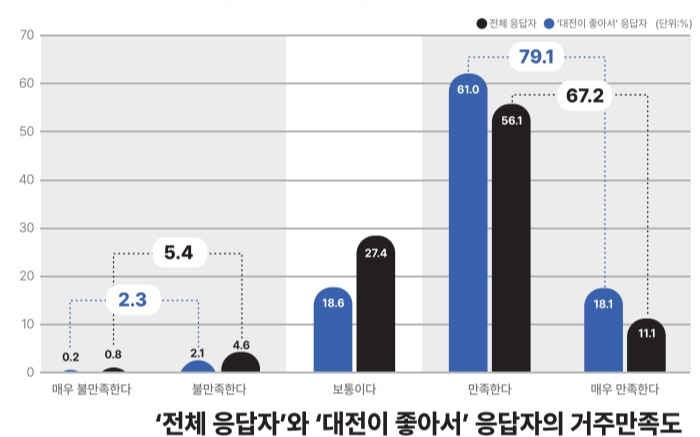
■ '대전이 좋아서' 응답자(n=858) 중 "대전에서 태어났지만,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온 사람(대전 출신)"은 42.4%(364명)이며, "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, 대전으로 이사 온 사람(타지역 출신)"은 57.6%(494명)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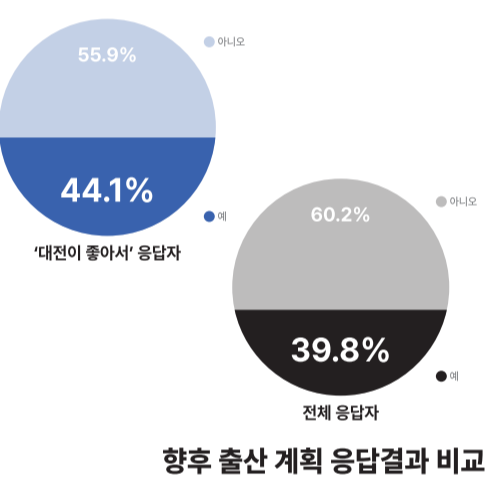
■ '대전이 좋아서' 이주해 온 사람들(n=858)은 떠나고 싶은 사람(3년 후:2.2%, 5년 후:1.8%)보다 대전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(3년 후:85.2%, 5년 후:80.4%)이 더 많다. 그리고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도 '대전이 좋아서' 이주해 온 사람들(n=858)의 정주 지속 의사가 더 강하다(3년 후:▲11.2%, 5년 후:▲9.5%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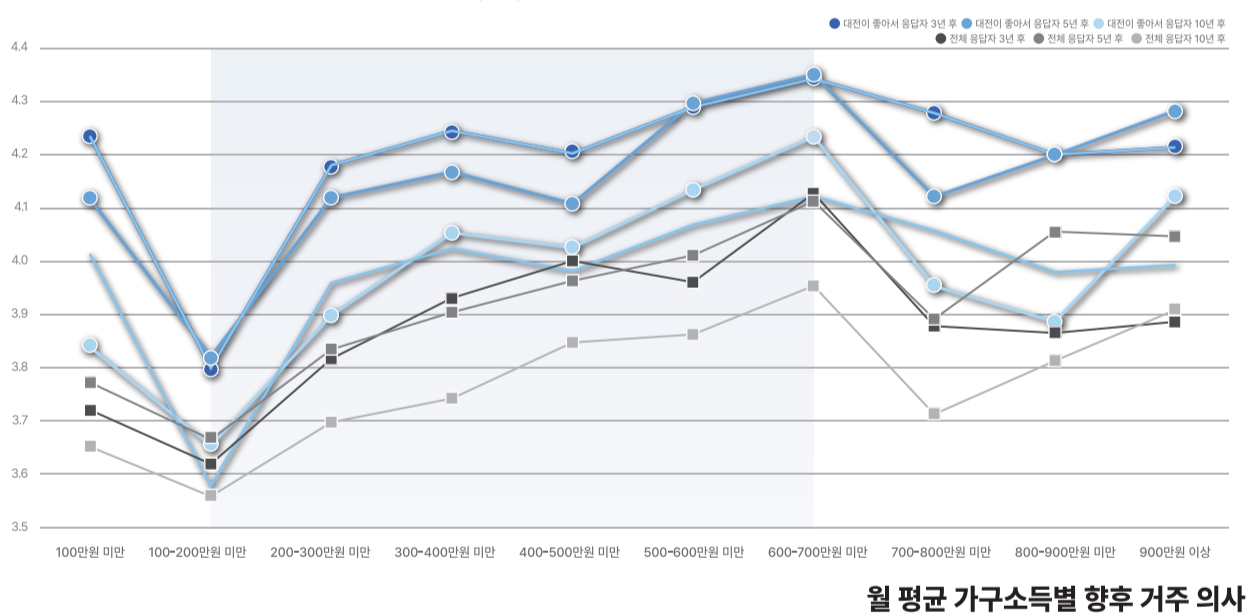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응답자(n=2,128)의 '대전시 거주 만족도'는 만족한다(만족+매우 만족)는 답변이 67.2%로, 불만족한다(매우 불만족+불만족)는 답변(5.4%)에 비해 만족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.
 '대전이 좋아서' 응답자(n=858)의 '대전시 거주 만족도'에 대해 만족한다(만족+매우 만족)는 비율이 79.1%로 나타나, 전체 응답자(n=2,128)의 만족도 (67.2%) 보다 조금 더 높다.



■ 향후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(n=2,128)는 39.8%가 계획이 있다고 한 반면, '대전이 좋아서' 이주해 온 사람들은 44.1%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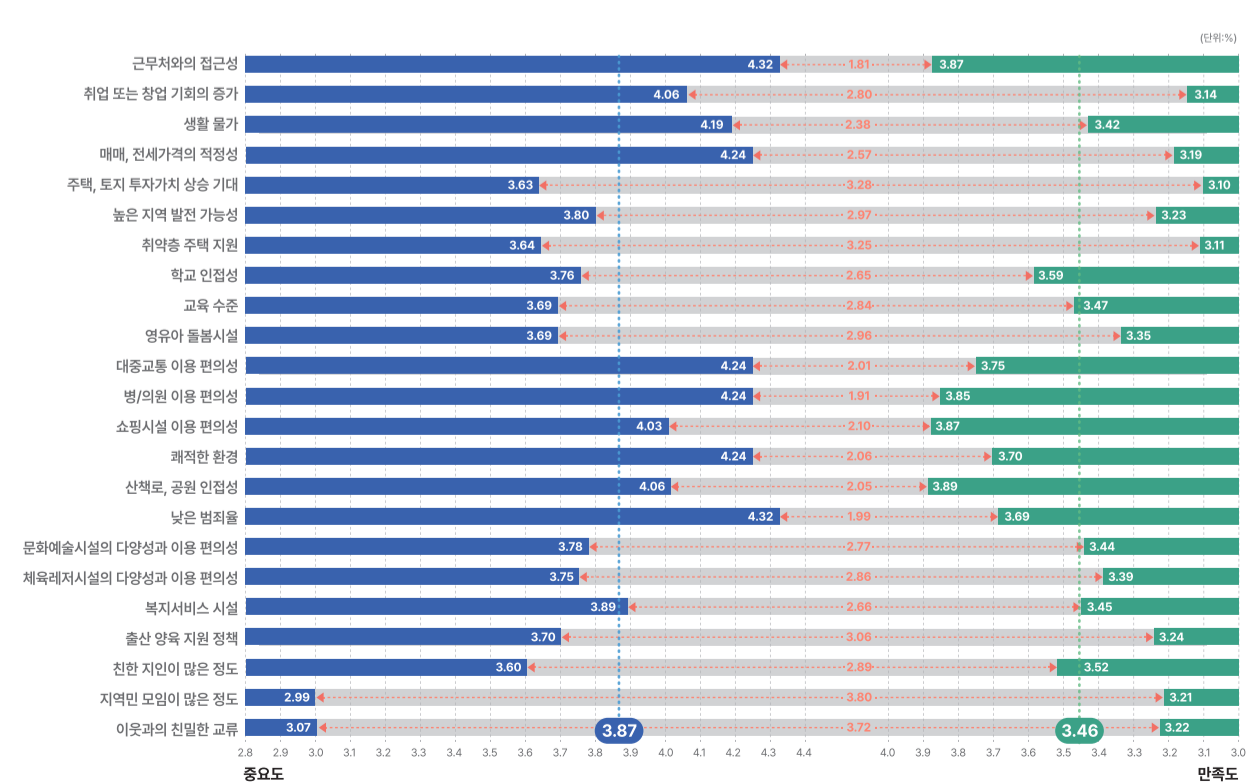


■ 전체 응답자(n=2,128)에 비해 '대전이 좋아서' 응답자(n=858)는 앞으로 대전에 계속 살겠다는 의향이 전반적으로 더 강하다. 소득 구간별로 살펴봐도 '대전이 좋아서' 이주 해 온 사람들의 정주 지속 동의 정도(평균)가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.



월 평균 가구소득별 향후 거주 의사

■ '대전이 좋아서' 응답자(n=858)들은 대전시 정주여건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3.87점, 만족도는 평균 3.46점이다. 이들이 중요하면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정주 여건은 '근무처와의 접근성(4.32_3.87)', '병/의원 이용 편의성(4.24_3.85)', '낮은 범죄율(4.32_3.69)' 등이며, 중요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'매매 및 전세가격의 적정성(4.24_3.19)', '취업 또는 창업 기회의 증가(4.06_3.14)'이다.



1) 합계출산율(Total Fertility Rate)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(ASFR)의 총합
 2) 설문조사 개요

- 조사대상 : 최근 20년 이내에 대전광역시로 이주한 25-45세의 남녀 시민
 - 조사방법 : 온라인 및 대면면접조사 병행
 - 전출입 데이터 사전 분석에 기반해 최근 전입이 활발한 행정동 중심으로 진행
 - 분석기간 : 2,128명
 - 조사기간 : 2023년 11월 08일 ~ 11월 27일
 *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여 응답의 합이 100%를 초과함

